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8호 【루계 제25767호】 주체106(2017)년 9월 1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불타는 일념안고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은 지난 20여년간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기증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강준일,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통역원 김호철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많은 건설자재와 설비, 물자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태양의 성지에 변함없는 충정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함흥시 화상구역원료기지사업소 로동자 리수경,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부원 차진명도 주체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전당을 빛내이는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였다.

희천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실장 리영호, 연구사들인 김명순, 한광철은 우리 당이 나라의 귀중한 보배, 시대의 영웅으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국방과학전사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다.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의약품들을 만들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의사 강승희,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 연구사 류덕규는 한생을 바쳐 연구완성한 건강보호약들을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주었다.

삼천군 삼천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부원 홍은주, 신의주시 하단협동농장 농장원 박순희, 은률군 옹 153인민반 조은하, 피현군 백마로동자구 157인민반 리설경은 특류영예군인들과 한가정을 이루어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력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신천세멘트공장 로동자 전명진도 뜨거운 인간애와 동지적사랑을 지니고 군사복무의 나날을 값높이 빛내인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가고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혜주기초식품공장 로동자 전남일, 의주군 옹 114인민반 리희강은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전투장에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보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에꽈도르 김정일도서관, 주체청년소조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이》, 기네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 불로그스포트.루》, 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그이의 친필명령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가을걷이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자

정원군의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도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것이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사회주의협동벌에 풍년농악소리 높이 울리는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정치투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올해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력사적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이라는 9월의 특대사변이 또다시 이룩됨으로써 빈말을 모르는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불패의 핵강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졌다. 세인을 경탄시키며 다제탄으로 이룩된 올해의 눈부신 성과들은 우리가 만풍년의 낟가리를 하늘높이 쌓아올릴 때 더욱 공고해지며 빛을 뿌리게 된다.

오늘의 가을걷이전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결사전,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기치,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전략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으로 적들에게 련속공격, 련속강타를 들이대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나라의 쌀독을 가득히 채워 적들의 국악한 제재책동에 통구멍을 내야 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굳건히 담보해야 한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풍년낟가리는 원쑤들을 전율케 하는 또 하나의 위력한 수소탄과 같다.

농업부문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한 당의 뜻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례년에 없던 혹심한 가물과의 일대 격전을 벌려 다수확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가물피해막이전투이자 당중앙옹위전이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라는 비상한 각오안고 떨쳐나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안아온 귀중한 열매가 그대로 풍년걸실로 이어지는가 마는가가 오늘의 하루하루에 달려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농업전선에서부터 경제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야 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다시한번 총공격전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에 필요한 중소농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기본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적기에 끝내는것이다. 변덕스러운 자연기후현상으로 하여 언제 우박과 서리가 내릴지 예측할수 없는 조건에서 가을걷이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끼는것이 중요하다. 여물기파정에 대한 조사를 잘하여 수확적기를 정확히 정하고 그에 맞게 일정계획을 바로세워 이삭이 여무는족족 가을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가을한 낟알에서도 숨쉬기가 진행되기때문에 논밭에 한말만 놓아두면 수확고가 20%나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낟짐승들과 들짐승들에 의해 적지 않은 낟알이 없어지게 되며 예상치 않은 기상기후조건으로 변질될수도 있다. 각 도,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상기후조건과 품종적특성에 맞게 적기를 정확히 정하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야 한다.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서야 한다.

농업성과 도, 시, 군, 농장일군들은 자기의 뼈를 깎아서라도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야전형의 일군이 되여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 총발동시켜야 한다.

포전을 남먼저 밟아보면서 실태를 환히 꿰뚫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일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전투진지도 남먼저 차지해야 한다. 중심고리와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이에 따라 력량편성과 영농물자보장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의 전투원들이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기가 맡은 포전의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제 익지 않은 낟알을 수확하거나 말짐히 털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농기계운전수, 운전공들은 기대수리정비를 깐지게 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가을걷이전투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도, 시, 군, 리당위원회 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들끓는 협동벌에서 이신작칙하면서 전투장마다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실적을 따지기 전에 먼저 농장원들의 집집을 찾아 뜨거운 정을 부어주고 농장관리일군,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단계별총화평가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수매량정성과 해당 단위들, 농촌들에서는 광곡수매와 운반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보관관리를 잘하여 귀중한 낟알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앞세워야 한다. 지금 들끓는 협동벌에 절실히 필요되는것은 전력이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은 낟알털기에 필요한 전력보장대책을 합리적으로 세워 낟알을 허실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전선에서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과 열정을 안고 이동식탈곡기와 각종 농기계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밥을 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진심으로 도와야 한다.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며 승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쳐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쌀쪽로로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2년분, 년간계획수행단위들이 늘어난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여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2년분, 년간계획을 수행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19일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가 2년분 굴진계획을 끝낸것을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적으로 9월 상순까지 3개의 채탄중대와 17개의 굴진단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에 대한 멸적의 보복의지를 안고 떨쳐나선 전체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날을 따라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대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그에 높은 굴진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충정의 전투를 맹렬히 벌리였다.

대장 김동철동무를 비롯한 전체 돌격대원들은 작업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결사관철의 정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련속전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줄기차게 울림으로써 2년분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송남청년탄광에서는 1갱 굴진1소대와 3갱 굴진1소대가 남먼저 년간 굴진계획을 수행하였다.

인포청년탄광에서도 년간계획수행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지난 8월 10일까지 1갱 채탄1중대와 2갱 채탄2중대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1갱 굴진4소대와 2갱 굴진1소대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이곳 탄부들은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한 결의밑에 증산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굴진 및 채탄막장마다에서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재 탄광에서는 모든 갱, 중대, 소대들이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우며 하루빨리 년간계획을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남덕청년탄광 1갱 직맹돌격대와 10갱 고속도굴진소대 탄부들도 지난 8월 10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냄으로써 석탄증산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들은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혈아전투를 벌려 더 많은 탄맡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명춘길

100t급뜬도크를 압록강에 띄웠다

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속에 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100t급뜬도크를 무어 지난 8월 31일 압록강에 띄웠다.

100t급뜬도크가 새롭게 무어짐으로써 수풍해운사업소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압록강으로 오르내리는 배들의 수리 및 정비기일을 앞당기고 그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어리차례에 걸쳐 이곳을 찾으시여 려객수송을 잘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룡해운성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항만수상운수관리국 국장 김용일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압록강에 배수리 및 정비기지를 꾸리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이들은 수풍해운사업소에 여러차례 나가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100t급뜬도크를 새로 무을것을 결심하였다.

관리국일군들은 전투현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분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철판과 용접봉을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후방사업도 적극 따라세웠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으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수풍해운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뜬도크를 하루빨리 뜯기 위한 전투를 줄기차게 벌리였다.

경사가 급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기중기를 리용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9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뜬도크무이를 결속하였다.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조건에서도 이들은 창조적지혜와 단합된 힘으로 뜬도크를 성과적으로 압록강에 띄우게 되였다.

결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아주신 려객선을 원상그대로 정상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으며 크고작은 배들을 임의의 장소에서 일기조건에 관계없이 마음먹은대로 신속히 수리 및 정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나라의 수상운수발전을 추동하는 이 성과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룡해운성의 전체 일군들과 정무원들, 로동계급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새로 무어진 100t급뜬도크는 압록강으로 오르내리는 배들의 수리 및 정비기일을 앞당김으로써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경제적실리가 큰 에네르기절약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관리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긴장한 전력문제, 에네르기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과학기술성과가 이룩되였다.

나라의 경제를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관리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하나의 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우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에네르기절약기술을 개발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업가열로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내화벽돌로 로벽을 쌓고 그뒤에 여러가지 단열재료들을 충진하여 열손실을 줄이고있다. 하지만 로벽체를 통한 열손실은 의연 적지 않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공업로들에서 허실되는 에네르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왔다.

주경태, 송길성, 렴룡진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과학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지난 십여년간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열로벽의 단열특성을 높이는 문제, 로안길면의 열복사능력을 높이는 문제 등 현실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특히 단열재료와 중고온열복사제를 우리의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업폐설물을 재자원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이 이들의 연구와 도입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의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는 새로운 에네르기절약기술은 로를 허물지 않고 내화벽돌절면에 부정형단열재료를 일정한 두께로 미장하고 그우에 열복사제를 바르는 식으로 쉽게 도입할수 있다. 여기에 내화벽돌보다 열차단특성이 더 좋은 단열벽돌을 리용하면 보다 큰 절약효과를 볼수 있다.

단열재료나 중고온열복사제와 점착제는 갈탄버력과 벼겨재, 산화철과 불유리를 비롯한 우리 나라에 흔한 값눅은 원료를 리용하여 큰 기술적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쉽게 만들어쓸수 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경제적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리용하고있는 1150℃까지의 작업온도를 가지는 가열로들에 새로운 에네르기절약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물단위당 에네르기소비를 30~40%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지금 이곳 과학자들은 단열재료와 복사가열에 의한 새로운 에네르기절약기술을 가열로뿐아니라 다양한 공업로들에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상이 맥박치는 최고의 공연》, 《광명한 미래에로 부르는 황홀한 주체의 예술》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한 강원도인민들의 반향

혁명의 노래높이 질풍노도치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고함 강원땅에 선군혁명나팔수들의 힘찬 총진군포성을 터쳐올린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본 원산시를 비롯한 강원도안의 인민들은 어디서나 공연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약동하는 새시대에 맞게 음악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음악,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예술을 창조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입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에게 돌려지는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뜻깊은 공연은 도안의 각계층 인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모두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는 격동적인 공연, 당의 령도따라 부강번영하는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황홀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로길종은 공연을 보면서 지난해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만나뵈렸던 영광의 그날이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강원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고장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을 자력갱생의 선구자로 불러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에는 언제나 우리 강원도인민들이 자리잡고있다.

강원도인민들을 위해 이처럼 훌륭한 예술단체들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도를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다.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뜨거운 격정으로 눈시울을 적신 송도원려관 지배인 조춘옥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람석에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자기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북관은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라고,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그는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몸가까이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부르면 그리움의 노래들을 관록있는 예술단의 음악으로 듣고보니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주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마식령골안이 환해지도록 웃으시던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리여온다.

기적의 만리마시대를 열고 인민의 천만소원을 꽃피워주는 우리 당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정을 담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우리의 꿈과 리상이 이 땅 어디서나 아름답게 펼쳐지고있음을 구가한 로동당시대의 찬가이다.

8.28청년돌격대 제1려단 참모 장윤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진행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듣고 판교군에서 수백리를 달려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열정적이고 기백넘친 공연을 보고나니 새힘이 용솟음친다, 공연무대에 펼쳐진 종목들은 단순히 노래와 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다, 정신이 번쩍 드는 훌륭한 공연을 보면서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돌격대제복을 애국의 구슬땀으로 적시며 우리 당을 받들어 청춘을 빛내여갈 결의를 다지였다고 하였다.

지난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던 원산구두공장 직장장 강원희는 자기의 가슴을 제일 뜨겁게 해준 종목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를 펼친 실화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구절을 되새길수록 목이 딱 메고 눈굽이 젖어들었다.

이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 희한하게 변모된 로동자들의 궁전에 어버이장군님을 모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매봉산》 상표를 단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뜻을 활짝 꽃피우겠다.

고성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 김지향을 비롯한 많은 관람자들이 지난 시기 텔레비존화면에서 보아오던 황홀한 공연을 주른 파도 출렁이는 원산의 송도원바다가에서 직접 보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우리는 공연을 보고 이처럼 환희에 넘쳐있는데 이밤 우리 원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가, 혹시 철령을 넘고계시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선다.》, 《원수님 가시는 길에 이렇듯 아름다운 노래만 올려드리고싶은 우리들의 진정을 담은 공연이다.》는 그리움과 흠모의 목소리들이 관람자들속에서 끝없이 터져나왔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소년단지도원 윤은철은 녀성독창 《아버지라 부릅니다》를 들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나라에는 아이들의 궁전, 행복의 보금자리가 수풀처럼 솟아올랐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원산시 한병남초급중학교 부교장 윤상희는 정말 자그마한 손색도 없는 공연이였다고 하면서 격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상이 맥박치는 최고의 공연, 혁명적열정과 약동하는 젊음이 넘쳐나는 공연이다.

노래와 무용을 비롯한 모든 종목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더 좋은 래일을 마중해나가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 조국의 벅찬 숨결이 세차게 맥박치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모두를 광명한 미래에로 부르는 황홀한 공연을 보면서 날로 비약하는 조국에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심장의 물음에 스스로 자신을 세워보았다.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게 앞으로 학생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나라의 믿음직한 억군으로 키워나가겠다.

원산수산사업소 로동자 장현일은 공연무대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노래가 녀성중창으로 울랐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모든 공연종목들이 훌륭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주의바다항키를 담아싣고 동해키슬에 메아리친 녀성중창 《바다 만풍가》가 인상깊었다.

모란봉악단의 배우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멋지고 흥취나게 부르는지 마치도 내가 놀심놀심 춤추는 만경창파우에서 그물을 당기며 물고기를 퍼올리는 심정이였다.

그래서 나는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따라부르며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인 우리네 황금해를 기쁨속에 그려보았다.

이 노래와 함께 길이 전해질 우리 원수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동해포구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영원히 울려퍼지게 하는데 나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다.

강원도무역관리국 로동자 최은하도 공연을 본 소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화려한 공연무대에 펼쳐진 하나하나의 노래들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강원도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인 《설명아래 사과바다》가 무대우에 울려퍼질 때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강원도의 이름과 더불어 불리우는 노래를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관록있는 악단의 예술인들이 멋들어지게 부르는데 우리 어찌 흥분되지 않겠는가.

흥겹고도 긴드러진 장단을 타고 울리는 이 노래에 맞추어 함께 온 동무들모두가 어깨춤을 들썩이였다.

공연장소로 한달음에 달려온 문평제련소 로동자 박금주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훌륭한 공연이였다, 매 종목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세계가 뜨겁게 비껴있어 심장을 틀어잡았다고 말하였다.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윤성철은 공연에 심취되여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목마다에 흘러넘치는 열정적이면서도 기백있는 독특한 형상들은 우리의 가슴속에 청년강국의 주인된 긍지와 자랑을 더해주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공연은 강원도청년들이 온 나라의 앞장에서 만리마기수로 더 빨리, 더 힘껏 내달리라고 고무하는 당의 믿음어린 당부로 안겨온다.

지금 도안의 여러 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보람찬 전구마다에서 청년들이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기에 우리 강원도는 머지않아 인민의 락원으로 훌륭히 변모될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에 확 드는 멋들어진 공연이라고 하면서 정준택원산경제대학 학생 박소련과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림국철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은 격동된 심정을 지마다 터쳐놓았다.

그들은 경음악 《단숨에》,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타프춤 《청춘시절》 등 조선청년들의 약동하는 기상이 나래치는 종목들을 보며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면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청년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원산시 덕성동에서 살고있는 정영봉은 혁명열, 투쟁열이 차넘치는 공연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부름앞에 오직 《알았습니다.》의 대답밖에 모르던 군사복무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고 하면서 혁명적인 노래들이 울려퍼질 때마다 그 시절의 못 잊을 추억들이 떠올랐다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그는 노래 《인생의 영광》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당 따라 가는 길에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철리를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 비록 나이는 많아도 어제날의 인민군대지휘관답게 조국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정보로 걸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원산시 봉춘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김진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공연을 보니 전화의 나날 화선천리 불비속을 뚫고 원쑤 미제를 무찌르던 그때의 젊음과 기백이 되살아나는것만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조국수호정신으로 보병총을 가지고도 원자탄을 가진 미국놈들과 싸워 이긴 우리 인민인데 최강의 핵무력을 그쯘히 갖춘 오늘에는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각계층이였지만 소감을 터놓는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진 진정은 한결같았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주는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대고조진군의 전렬에서 위대한 시대정신을 더욱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싱가포르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할리마 야꼬브각하

나는 당신이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자주권존중과 호혜의 원칙에서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귀국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9월 14일 평 양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스리랑카, 인디아, 파키스탄에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기간에 엄격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등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의 대답》,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자리야당 총비서 모스타파 자말 하이더,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세이크 라피쿨 이슬람 바블루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는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의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요구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나라가 대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압력을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최근년간에도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달성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더블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시종일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해왔으며 인민생활향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온갖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실제험을 통하여 조선식사회주의가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절감한 조선인민은 공화국정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조선은 지난 세기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위핀 굽따는 오늘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령도아래 더욱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로 전변되고있다,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주체연구회 회장 버카르 울라는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였으며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주신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주체의 핵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대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자

참신한 방법론이 안아온 높은 실효

양덕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상교양사업은 천편일률식이 아니라 대상의 수준과 준비정도,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 때 실효를 거둘수 있다.

양덕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히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날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고있는 5대교양사업정형을 료해하던 군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원봉동무는 교양사업의 실효성문제를 놓고 생각이 많았다. 직관물을 통한 교양만 놓고보아도 그랬다. 거의 모든 단위들이 일정한 장소들에 5대교양직관판을 게시하고 그 내용을 반복하여 해설하는 식으로 하고있었다.

사람들의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단위마다 실정도 다른 조건에서 5대교양의 실효를 높이자면 옳은 방법론이 필요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했다.

본보기단위선정을 한개 단위로 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했다. 여러개 단위를 정하고 동시에 경험을 창조하게 했다. 이렇게 되여 온정리당위원회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통한 교양의 본보기단위로, 양덕고치생산사업소가 신념교양의 본보기단위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니 5대교양과 관련한 참신한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본보기단위창조를 지난 시기처럼 해당 단위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자체의 힘으로 본보기단위가 되도록 떠밀어주는 방법으로 한것이 혁신적이다.

일암리당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본보기단위이다. 부장 박철근, 부부장 손일경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리당위원회가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계속 떨칠수 있도록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군당위원회는 매 농장원들이 좋은 일을 한 정형을 적어넣는 수첩을 구비하게 하고 그를 통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켜나가고있는 일암리당위원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현지에서 조직하였다. 이것은 모든 당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전환시키고 군안의 근로자들이 너도나도 애국적열정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서게 한 계기로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본보기단위를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군계급교양판강사들이 계급교양을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양덕땅에서 감행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학살만행자료를 보여주는 반경화를 통해 특색있게 하고있는 사실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군당위원회는 현지에서 군안의 계급교양강사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했다. 이것은 많은 단위들이 본보기단위의 수준에 올라서기 위한 경쟁에 뛰여들게 했다. 그 과정에 새로운 본보기단위들이 늘어났다.

군당위원회는 5대교양에서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우선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품을 넣었다. 지난 6월초 군안의 계급교양강사들을 위한 강습과 강의경연을 조직한것은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고 서로의 경험을 배우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또한 실천을 통해 그 위력이 확증된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능력있는 직외강연강사들과 공로자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고 매월 군안의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며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한것이 그 실례이다.

지난 4월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왔던 절전자들과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을 망라한 집중강연선전대들을 조직했다. 온 군에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차넘치게 하고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실효가 컸다. 집중강연선전대에 망라된 절전자들과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은 영광의 그날을 잊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앞장설 결심을 굳히였다. 동시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양덕군에 새겨진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잘 알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스스로 떨쳐나서게 했다.

지난 8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문화회관건설장, 온하리삼림집개건전투장, 돼지목장건설장, 목재품공장, 풀베기전투장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시기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가지고 강연선전활동을 벌렸다. 시 《조선은 싸운다》와 노래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를 배합하여 벌린 이들의 강연선전은 대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5대교양에서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는 속에 군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참신하게 벌려나간 군당위원회의 사상교양사업의 위력이 안아온 응당한 귀결이였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신념의 강자가 될수 있다

황주직물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창조의 능수가 될수 있다

그 어떤 람구도 신념을 떠나서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신념은 진통을 동반하는 람구의 길에서 성공을 담보하는 근본원천이다.

황주직물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신념교양을 강화하여 자력갱생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수입에 의거하던 연사기가락활차용테프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또 한차례 실패했을 때였다.

현장에 나가 해당 기술혁신조에 망라된 성원들을 만나본 초급당위원장 최현미동무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신념교양을 더욱 강도높게 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였다.

일부 성원들이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속에서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나약성을 느꼈던것이다.

초급당일군은 오늘같이 어려운 때 자력자강의 신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있는 기술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혁신조성원들의 심장속에 자력자강의 신념을 억척같이 벼려주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나갈 결심을 굳히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신조성원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매개 단위에서 신념교양을 보다 강도높이 벌리도록 하기 위한 불씨를 직포작업반 당세포에서 찾았다. 남들과 다를바없이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직포현장에서는 기대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리고 놀라운 생산적앙양이 이룩되고있었다. 그것은 당세포가 신념교양을 매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참신하면서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데 비결이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이곳 당세포의 모범을 적극 내세워주었다. 그리고 모든 당세포가 실효성있는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 즉 온 공장이 신념교양의 활무대가 되도록 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불굴의 기개가 온 공장에 차넘쳤다.

기술혁신조에 망라된 성원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그들은 잠시나마 실패앞에 나약해졌던 자신들을 다잡고 분발하여 일어섰다. 강심을 먹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과정에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였으며 연사기가락활차용테프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였다.

연사기가락활차용테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생산상화의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공장에서 혁신과 위훈의 새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중을 기술혁신전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신념교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것은 잘한 일이다.

기술우에 신념이 있다.

대중을 신념의 강자로 키울때만이 그들을 실력의 강자, 창조의 강자로 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은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애국심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박천군 상양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박천군 상양리에서 영농공정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자기 일터와 마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주고있다.

얼마전에도 가을걷이전투준비와 관련하여 작업반마다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실효는 대단히 컸다.

이를 계기로 농장원대중의 열의는 더한층 높아졌고 당면한 영농공정에서는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립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그러면 영농공정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이 어떻게 되여 대중의 애국심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는가를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보기로 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던 어느날 작업반들을 돌아보던 리당위원장 리성남동무는 생각되는바가 컸다.

본보기단위로 내세운 제5작업반에서는 모든 일이 계획된대로 척척 나가고있는데 다른 작업반들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던것이다. 거름생산과 반출을 비롯한 농사차비에서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에 낯을 적게 돌리는 편향들도 있었다.

참된 애국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에서부터 생긴다. 제5작업반에서 진행하게 되여있는 보여주기사업을 앞당기자. 그 단위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그대로 농장원대중의 애국심을 분출시키는 정치사업과정으로 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리당일군은 다음날 관리일군들에게 자기의 결심을 내비치였다.

이 제의는 관리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여 모든 사업에서 앞장선 본보기단위인 제5작업반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앞당겨 진행하게 되였다.

여기서 리당위원회가 잘한 점이 있다. 지난 시기같으면 영농공정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에 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이 참가하군 하였는데 이날의 모임에는 당세포위원장, 선동원들도 함께 참가시켰다. 단위에서 이룩된 성과는 그 단위 당초급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정치사업의 결과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리당위원회는 마감에 제5작업반의 당세포위원장과 선동원들을 내세워 단위의 실정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킨 경험토론도 진행하게 하였는데 참가자들이 받은 자극은 컸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다음번 보여주기사업은 어느 작업반에서 진행하며 어떤 점들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날의 모임은 참가자들모두를 각성시키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하기에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다음번 보여주기사업에서 자기 단위가 앞장설 결심을 안고 뛰고 또 뛰였으며 당세포위원장들과 선동원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애국심을 키워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농장원들속에서는 자기 일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농사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는 농장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영농공정별전투실적이 높아진것은 물론 작업반과 마을의 면모도 일신되게 되였다.

애국심을 높여준 보여주기사업,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리당위원회에서처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심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잘해나간다면 그 어느 단위에서나 비약적성과가 이룩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철도운수부문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철도성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도덕교양에 큰 힘을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선 도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대중속에 깊이 체득시켜 누구나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활동, 독보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일군들의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일군들이 도덕기풍확립에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며 늘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충정의 열정을 다 바치는것과 함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등 일군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들은 거울이 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말없이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온 탄광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이 더욱 차넘치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보복열기를 고조시킨 시랑송발표모임

평원군 삼봉리당위원회에서

평원군 삼봉리당위원회에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인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백년숙적 미제와 총결산할 멸적의 의지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남강도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또다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였을 때였다. 리당위원회는 농장원들의 보복열기를 고조시킬 목적밑에 리수복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가지고 시랑송발표모임을 조직하였다.

리당위원회가 시랑송발표모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잘한것이 있다. 준비사업에 품을 들여 실효가 최대로 나타나게 한것이다.

리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시에 담겨진 사상과 내용을 인식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우선 로전방송기재와 음향기재를 리용하여 시를 반복하여 내보내게 했다.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들에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게시하게 하였다. 또한 시를 잘 읽는 대상들을 준비시켜 회의나 모임시작전시간을 리용하여 랑송하게 했다. 이렇게 조건과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짜고드니 그 실효가 매우 컸다. 또한 당, 청, 근로단체일군들이 작업반들에 나가 설참을 리용하여 농장원들에게 시에 담겨진 사상적내용을 해설해주게 했다.

농산제3, 10작업반 풀베기전투장에 나간 리당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리수복영웅의 시가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시에 담겨진 깊은 뜻을 학습하는 과정에 농장원들은 리수복영웅이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전적로를 연 위훈도 크지만 후대들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고 조국을 위하여 고귀한 청춘을 바치는것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훌륭한 시를 남긴것이야말로 영웅적위훈에 못지 않은 공적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이런 해설사업은 농장원들에게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처럼 미제와의 총결사전에 용약 달려나가 최후승리를 이룩할 각오를 굳혀주었다.

시랑송발표모임이 끝나자 농장원들은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풀베기를 다그쳐 끝낼 결의를 피력하였다. 시랑송발표모임이 결의모임으로 된셈이였다.

리당위원회는 풀베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농장의 실정에 맞게 시랑송발표모임을 작업반단위로도 하게 하였다. 그 운영은 선동원들이 하게 했다. 풀베기현장에 현장에서 진행된 시랑송발표모임은 농장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시랑송발표모임이 끝나자 농장원들은 일제히 풀베기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심정으로 떨쳐나 풀베기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의미에서 리당위원회가 리수복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가지고 진행한 시랑송발표모임은 미제와의 총결사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보복열기를 고조시킨 참신한 교양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6(1947)년 9월 15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업기술인재들을 전문으로 키워내는 흥남공업대학(당시)을 창립해주시고 여러차례 대학에 나오시여 당의 교육정책관철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을 널리 개척하고 첨단을 돌파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교육조건을 개선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 지난 70년간 교육과학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학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와 실험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였으며 전자도서관을 새로 꾸리고 과학기술자료봉사와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교수사업과 교무행정사업, 대학관리운영사업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과 주체적교육사상을 충직하게 받들고 과학기술인재양성과 첨단과학기술발전에 일심전력하여온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교직원들과 과학기술강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 대학생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총장 한성일의 보고에 이어 부총장 신동철, 학부장 김인철, 청년동맹위원회 부비서 김금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대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주체적립장과 안목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새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화학교육분야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리론적, 교수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화학공업발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대학생들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지워져있다는 높은 책임감과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학습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과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9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9월 하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도 한두차례 받을것이 예견된다.

순평균기온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정도이겠으며 강수량은 북부의 대부분지역에서 평년정도, 그밖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적겠다.

해발 500~1 000m의 중부산악지대에서 9월 하순에 첫서리가 내릴것이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고 수확을 제때에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벼수확시기를 정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벼수확을 지나치게 일찍 하면 낟알이 제 여물지 못하여 어문물과 천알질량이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적기보다 늦게 하면 이삭목이 부러지고 낟알손실이 많아지게 된다.

논물떼기를 제때에 하여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땅속물층이 높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이나 질흙, 질미흙논에서는 수확하기 10~15일전에 논물을 떼고 포전들에나 포전가운데에 물도랑을 내여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 논이나 모래기가 많은 논에서는 수확하기 5일전에 논물을 떼는것이 좋다.

벼가 넘어진 포전들에서 물빼기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이삭이 물에 잠겨 썩지 않게 묶어 세워놓아야 한다.

벼가 여무는족족 가을걷이를 제때에 진행한 다음 벼를 잘 말리워야 한다.

벼를 잘 말리우지 않으면 낟알털기작업에 지장을 줄수 있으며 낟알을 보관할 때 변질되기 쉽고 쌀품질과 정미률이 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마른논에서는 가을한 벼를 논에 펴놓고 2~3일 말리운 다음 단으로 묶어 세워놓으며 물이 있는 논에서는 이삭이 젖지 않게 단으로 묶어 세워놓았다가 인차 논두렁에 꺼내놓고 말리워야 한다.

벼단을 세워놓고 7~10일정도 말리운 다음에는 동가리치기를 진행하여 비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전에서 이동식탈곡기를 리용하면 낟알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수확과 낟알털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강냉이수확을 잘하여야 한다. 강냉이품종들의 어무는 기간과 낟알의 물기함량, 윤기, 굳기정도를 고려하여 수확적기를 정확히 판정하고 제때에 수확하여야 한다.

수확후 운반을 잘하여야 한다.

탈곡장에 운반한 강냉이이삭은 인차 오사리를 벗기고 마당에 펴놓거나 창지에서 잘 말린 다음 낟알털기를 하여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잎덧비료와 물주기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며 가을걷이를 적기에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원그루콩과 뒤그루콩포전들에서 잎덧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8월 중하순에 비가 자주 내려 잎덧비료주기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꼬투리와 잎이 푸른 상태로 있는 조건에서 잎덧비료주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병충해를 미리막기 위하여 농약을 섞어 뿌리는것이 좋다.

품종별로 콩이 어무는족족 가을걷이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잎이 누렇게 되여 거의 떨어지고 콩알이 꼬투리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에 수확하여야 한다. 가을걷이는 대기습도가 높은 오전이나 흐린 날에 하는것이 좋다.

가을밀, 보리농사에서는 씨뿌리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씨뿌리는 시기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을밀, 보리는 씨뿌리기를 한 다음 땅이 얼기 전까지 키가 10~15cm 자라고 원대의 잎이 5~6잎, 아지가 2~3대 되며 아지치는 마디의 당함량이 12~15%이상 되여야 겨울을 안전하게 날수 있다.

씨뿌리는 량을 제배방법에 맞게 바로 정하고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단지 및 이식재배하는 단위들에서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를 잘하여야 한다. 모판을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계속 전진

배천광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9월 6일까지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광산초급당위원회에서는 올해전투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기본방도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청입식정치사상공세를 힘있게 늘이대였다. 광산구내와 생산돌격전이 벌어지는 현장들에 갱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도표를 비롯한 직관물들을 게시하고 광부들의 투쟁소식을 제때에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참모부에서는 일별, 주별, 월별전투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전투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광부들의 앙양된 열의가 생산성과로 이어지게 하였다. 4갱 1소대와 6갱 6소대원들이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제일먼저 완수하였다. 이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당중앙을 받들어나갈 불타는 열의안고 막장마다에서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5월 하순 년간계획을 수행한데 이어 8월말에는 2년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광산적으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날을 따라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10여개 소대들이 년간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곳 광부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홍 성 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빛내여가는 교원혁명가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만사람을 울리는 또 하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불려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진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수도 평양에 불러주시여 한생 잊지 못할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데 이어 그들모두를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던것이다.

당에서 걱정하는 분제, 당이 대학이나 도시의 학교에서 혹은 정든 고향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교단에 설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누구나 힘겨 용단을 내리기 어려운 초소에 자원진출하여 한생토록 깨끗한 교육자적량심을 다 바쳐가고있다.

옛날에는 학교에 학생이 찾아가서 배웠지만 로동당시대에는 학생수가 많건적건 관계없이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배워주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학교건설원칙에 따라 외진 등대섬들에 분교가 생겨났을 때 주저없이 자원진출했던 첫세대의 섬분교 교원들, 이들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였다.

30년, 40년동안 등대섬마을의 교단을 지켜선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의 전해영동무와 항구구역 대두소학교 지레도분교의 전복순동무를 비롯한 로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들이 가득차있었던가.

비록 뭍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외진 섬에서 청춘시절이 흘러갔지만 어머니당의 손길이 언제나 곁에 있어 외로움을 모르고 꿋꿋이 한길을 걸어왔다는 그들의 마음속진정은 무수한 분교마다에서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고결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삶의 메아리로 울려퍼진다.

이러한 전세대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최전연지대와 섬마을, 심심산골의 분교에로 자원진출한 교육자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엄마전에 진행된 뜻깊은 축하모임때 연단에 나섰던 순위고급중학교 교원 강선애동무의 토론은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20년전 중학교시절 공부를 잘하여 7.15최우등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고 그후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21살의 처녀앞에는 자기의 희망을 꽃피울 곳이 어디에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제일 어려운 조국보위초소가 있는 섬의 분교에서 군관자녀들을 가르칠 쉬지 않은 결심을 하고 자원진출하였다. 시해의 최전연섬초소학교에서 그의 교원생활은 결코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절세위인들의 혁명실록과 헌지지도소식들을 가지고 365일교양자료집을 만들고 학과목의 탕정책화를 실현하여 학생들을 충정의 인간들로 키워가던 그는 여러해전 뜻밖의 병을 앓게 되였다.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걸을수 없었던것이다.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저도모르게 통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는 짐이 되지 말고 물에 나가자.)

그러했던 강선애동무가 마음을 다잡고 기어이 일어설 결심을 한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이야기에 접한 그날부터였다.

선도개벽된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시여 6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도유치원과 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위고급중학교 무도분교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재도방어대에 있는 3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돌아보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런 유치원과 학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일떠설수 있는 세상에 다시 없을 요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 요람을 지켜선 교육자가 다름아닌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에 그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매일 학교에 나가 하루도 교단을 비우지 않았다.

이런 깨끗한 애국충정을 안고 20년간 교단을 지켜선 그는 당의 은정속에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번에 행복의 절정에 올라선 교육자들속에는 부부교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청단군 갈산고급중학교 무지분교의 최철이, 조복순동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한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던 이들부부가 외진 무지분교에로 자원진출한데는 사연이 있었다.

분교에 교원이 모자라 수업에 지장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대군인인 최철이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누구든지 지켜야 할 교단인데 우리 부부가 가면 교원이 두명이나 생기지 않겠는가.

최철이동무가 자기의 속생각을 내비쳤을 때 안해는 말했다.

자식들이 커가는데 생소한 고장에 어떻게 가겠는가고.

안해의 손을 꼭 잡고 거기에도 우리 인민들이 살고있고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다, 당신도 대학시절에 교원은 후대교육을 책임진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지식보다 먼저 배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당의 걱정을 덜어드리자고 절절한 심정을 터놓는 남편의 진정을 리해한 그날부터 더더욱 정이 두리워졌다는 이들 교원부부.

이렇게 산골분교 교원이 된 이들부부는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치였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만 한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 보살펴주고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로 키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던 그 감동깊은 사연들을 어떻게 여기에 다 전할수 있겠는가.

염소를 길러 학생들에게 우유를 정상적으로 먹이고 양묘장을 꾸려 수많은 과일나무모를 가꾸었으며 학생들에게 어려가지 악기도 가르쳐주어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공연도 진행해나감으로써 그들을 알곡증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이야기…

이렇듯 숭고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 우리 조국의 미래를 억세게 가꾸고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인가.

행복과 영광의 아득한 높이에서 누가 말하였던가. 정에 끌리고 정에 묻혀사는 사람은 더없이 행복하다고.

평양에 올라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정과 믿음을 받아안은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바로 그렇다. 온 우주를 안은듯 커다란 걱정에 넘쳐 로동당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이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슴을 끝없이 울려준다.

이들이 어떻게 되여 미제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평양에 올라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였는가.

지난해 11월 외진 섬에서 후대들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평가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올해의 9월에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평양에 불러 축하모임을 이들이 한결같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의 수업은 비록 외진 섬이나 산골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노력을 어머니 우리 당이 다 알고 이 세상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고있다. 당중앙뜨락에 우리 학교, 우리 분교가 있다!

이렇듯 성스러운 혁명가적인 생관으로 미래를 가꾸어가는 교원혁명가들이 많기에 이 땅에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은 있을수 있어도 우리 당의 따사로운 해빛이 가닿지 않는 그늘진 곳이란 없는것 아니랴.

다진 맹세 변함없이 지켜가리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당에서 평양으로 불러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란듯이 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도, 시, 군당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황해남도와 평안북도, 량강도를 비롯한 도, 시, 군일군들의 뜨거운 성의와 축하의 인사를 받으며 수백명의 교원들이 꿈결에도 그려보던 평양으로 향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정중히 드리고 충정의 보고를 올린 이들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대성산혁명렬사릉, 조선혁명박물관, 평천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며 신념의 맹세를 더욱더 다져들었다. 그리고 나날이 아름답게 변모되는 수도 평양의 곳곳을 돌아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류경원과 문수물놀이장, 릉라곱등어관,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활짝 피운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중등학원, 평양초등학원, 평양제4소학교, 전국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교육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주체교육의 발전면모를 가슴벅차게 새겨안았다.

뿐만아니라 제3차 전국교육과학연구토론회에도 참가하여 교육자적안목을 넓히면서 하루하루를 뜻깊고 의의있게 보냈다.

9월 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은정어린 선물과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영광만으로도 이들은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런데 저녁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성대한 연회상이 기다리고있었다.

행복의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떠나갈 때가 되여오자 이들은 한생토록 품고 살아온 가장 큰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자애로운 어머이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보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한품에 안아주시던 격정의 그날 이들의 심장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끓고있었던가.

(영예로운 이 길을 한생의 끝까지 가고가리라!)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은률군원평고급중학교 정무분교에 자원진출한 정미경동무, 후대들을 위해 산골막바지에 자리잡은 동창군 회상고급중학교 회골분교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서정목동무, 이동작업을 나갔던 남편을 통해 분교에 교원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고 읍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태천군 마평고급중학교 등산분교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김정임동무,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에서 한생을 빛내인 전해영동무처럼 살리라는 결심을 품고 이곳에 달려나간 김수림동무, 새 세대 교육자의 본분을 다해가려고 안해와 두살 난 딸을 데리고 최전연지대인 창풍군 대덕산소학교에 자원진출한 김광복동무…

누구를 만나보아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화와 같은 정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한생 교단을 끝까지 지켜갈 맹세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오늘의 이 영광을 심장에 새기고 최전연군인자녀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대병사들로 억세게 키우겠다. 우리 섬분교를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훌륭히 꾸려놓겠다.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산골학교 아이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들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들이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들어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내렸었던 애국의 큰걸음을 한생 변함없이 이어가며 후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훌륭하게 키워 이 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리라는것을.

그렇다.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이 있어 조국땅 그 어디서나 애국의 마음은 보석처럼 빛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의 력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년륜으로 뚜렷이 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4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과 민족의 품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생일 91돐과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진행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생일 91돐과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한 사진전시회가 1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나라와 꾸바기발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부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판게무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혜루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쏘뜰롱고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조선과 꾸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국섬유종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섬유종이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3일과 14일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는 화학공업성, 국가과학원 산하단위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북종합대학, 신의주팔프공장을 비롯한 과학, 교육기관, 공장의 과학자, 연구사, 교원, 기술자, 현장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섬유종이공업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종이공업을 다방면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목적으로 열린 발표회에는 7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양마를 비롯한 껍질섬유작물품종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 《증기분사식열뽑프를 리용한 갈탄프회흑액증발공정확립에 대한 연구》, 《갈증성아류산암모니움팔프의 질개선》, 《망초를 원료로 하는 중해약제생산》, 《생물—열, 화학법에 의한 갈탄프생산》을 비롯한 여러 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섬유종이공업분야의 발전추세와 나라의 섬유자원을 더 많이 개발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발표회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섬유종이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연탄군 중소형발전소 운영 및 건설대에서 인민체력검정월간사업을 실속있게

이런 분위기속에서 종업원들은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체육열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들과 기자재들도 그때마다 갖추어놓아 대중체육분위기를 한층 돋구고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종업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인민체력검정에서 모두가 합격하기 위하여 훈련에 열정을 바치였다.

얼마전 집단의 앙양된 열의속에 진행된 인민체력검정에서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합격하였다.

로농통신원 김룡식

말디브에 갔던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귀국

장춘상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이 말디브의 말레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하고 1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형훈 보건성 부상과 투샤바 페르난도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마중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박태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들은 다음과 같다.

16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7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8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9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30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황해북도양로원 준공식 진행

우리 당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황해북도양로원이 새로 일떠서 준공되였다.

은파군에 양로원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속에서 년로자들이 여생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위원장, 판게무문 일군들, 건설자들, 양로원종업원들과 보양생들, 은파군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임훈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던 주체37(1948)년 5월 승호군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년로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국가가 그들을 돌봐주는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우는 혁명적도덕기풍을 세워주시고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적명절날과 기념일때마다 양로원보양생들에게 여러가지 식료품과 옷류, 진귀한 보약들을 보내주시는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지방의 양로원들을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도양로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와 은파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양로원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건장한 전투를 벌려 건물기초공사와 골조공사 등 전반적공사를 힘있게 다그쳤으며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당의 뜨거운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에서 양로원보양생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양로원의 종업원들은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년로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며 건물과 시설물, 비품들을 정상유지, 정상관리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해나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양로원을 돌아보았다.

더욱 높아가는 계급교양주제의 문예작품창작열의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계급교양주제의 문예작품창작열의가 높아가고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멸적의 보복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올해에만도 1 600여건의 글 및 그림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작품들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놈들과는 오직 총대로만 결산해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실화 《죽음의 소굴》, 단상 《행복이 흐르는 거리에서》, 동시 《신천의 박물관》, 《불발탄》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 원쑤들에 대한 천백배의 증오심을 더해주고있다.

작품들가운데는 살인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피의 교훈을 새겨주는 웅변글 《아수》, 우화 《어리석은 뻐꾸기》도 있다.

수필 《사랑과 증오》, 《할아버지의 표창장》, 그림 《산송장》 등의 작품들은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극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청소년학생들에게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심어주는데서 높은 실효성을 발휘하고있다.

계급교양주제의 글 및 그림작품현상모집 총화모임이 1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지난 기간 문예작품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수한 작품을 내놓은 근로자들과 학생들에게 상장 등이 수여되였다.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사업 활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도에서는 올해에만도 후원단체들을 적극 발동하여 수백개의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표준화된 실험실습실들을 꾸리였으며 2 000여점의 각종 교육설비와 비품들을 마련하여 학교들에 보내주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이 사업에 모든 단위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안악, 배천, 강령군에서 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후대교육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갈 일념안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제기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짧은 기간에 교사들을 번듯하게 꾸리고 교구비품들과 실험실습용기자재들까지 해결해주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봉천, 은천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불길높이 학교증축공사를 최단기간에 완공하고 운동장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풍치를 돋구었으며 하부형이 된 심정으로 책걸상을 비롯한 교구비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해주시, 벽성, 장연군에서 후원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 태양빛전지판, 학용품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와 비품들을 마련하여 학교들에 보내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교육의 혜인 올해에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일념밑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제15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 진행

제15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가 14일 풍치아름다운 보통강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와 각 도낚시질애호가협회에서 선발된 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물고기들의 습성과 물깊이 등 환경조건에 맞게 대낚시와 기계대낚시를 배합하여 두틀까지의 도구를 리용하면서 자기들의 낚시묘기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황해북도의 송경남선수가 제일먼저 물고기를 낚아낸데 이어 다른 선수들도 뒤질세라 붕어, 잉어, 살치, 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연방 잡아냈다. 단위시간동안에 잡은 물고기마리수와 중질량에 따라 경기순위가 결정되였다.

평양시의 김호명에게 1등상이, 평양시의 량명철, 황해북도의 김학운에게 2등상이, 평안북도의 황철선, 함경남도 오룡희에게 3등상이, 남포시의 정재권에게 기술상이 수여되였다.

경기는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하고 랑만에 넘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낚시도구창안품전시회에는 도, 시, 군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 90여명이 내놓은 280여종에 2 370여점의 낚시도구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착상이 독특하고 사용이 편리한 각종 낚시도구들과 미끼들을 내놓은 남포시, 강원도, 함경북도가 각각 1, 2, 3등을 하였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대표단들 도착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도착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가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서기장인 박영철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그린랜드, 그레네이더, 네데를란드, 로므니아, 마다가스까르, 말레이시아, 바레이도즈, 스코틀랜드, 저메이카, 중국 홍콩, 중국 대북, 핀란드, 프랑스, 쓰르비아, 아일랜드,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리아, 이딸리아, 잉글랜드, 에스빠냐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14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단마르크, 싱가포르, 아랍추장국, 웨일즈 등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괴뢰당국은 경망스러운 추태가 불러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성명

인류평화의 파괴자, 침략의 괴수인 악의 제국 미국의 똑두각시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말살하는 또 하나의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군들의 비렬한 야합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제2375호는 적법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협잡문서로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온 세계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가관은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뿔수없기 짝이 없는 남조선괴뢰들이 때를 만난듯이 이 더럽한 범죄문서조작에 대해 《지지》니, 《환영》이니 하고 피여올리며 억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괴뢰청와대것들이 《제재수위의 한층 강화》니, 《새로운 돌고》니 하며 세상이 웃는줄 모르고 들까불어대는가 하면 괴뢰외교부것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부성명》이라는것을 뭉그려가지고 《북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것》, 《북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것》이라는 등 객적은 수작질을 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괴뢰국무총리와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것들은 무슨 큰 변이나 일어날것처럼 부산을 떨어대면서 유엔《제재결의》조작에 발맞추어 모든 부, 처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느니, 다양한 외교적조치와 강도높은 《독자제재안》을 마련하여 《대북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고있다.

그야말로 저들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헤덤벼치는 어리석은자들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번 유엔《제재결의》로 말하면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핵무력강화에 다급해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구차스러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재결의》가 조작되자 《알맹이가 쏙 빠진 결의》, 《통두사미》, 《실질적효과보다는 명분살리기》라는 비난과 조소가 쏟아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평가》니, 《지지, 환영》이니 하면서 팔삭둥이처럼 놀아대는 꼴은 경망스럽기 그지없다.

더욱 가소로운것은 마치 저들이 그 무슨 국제사회를 대변이나 하는듯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하며 주제넘게 입부리를 놀려대는것이다.

그 누구에 대해 《교림》이니, 《어두운 미래》니 하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줴쳐대다가 오히려 내부에서 물리우고 주변국들로부터 면박을 당하다 못해 미일상전의 조롱거리가 되여 낯색이 퍼렇게 죽어들아가는것이 바로 괴뢰들의 가련한 신세이다.

그 주제에 아직도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헤덤비고있으니 역시 괴뢰는 어제나 오늘이나 갈데없는 괴뢰이다.

비굴하고 추하기 그지없는 식민지하수인인 남조선괴뢰따위의 수작질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을 엄중히 유린, 모독한 유엔《제재결의》조작을 앞장에서 추어올리고 《독자제재안》마련이니 뭐니 하며 대결광기를 부려대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괴뢰당국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품고 대결일변도로 북남관계를 송두리채 결딴낸 천하역적무리인 박근혜패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행태에 대하여 피다 계산해두고있으며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낼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리다가는 우리와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고 순간에 모든것이 끝장나게 된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경고의 뒤끝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이 따른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괴뢰당국은 경망스러운 추태가 불러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6(2017)년 9월 14일
평 양

민심을 무참히 짓밟고 《싸드》추가배치를 강행한 역적무리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남조선당국의 대미추종과 동족대결망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8 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현지주민들과 각계층 단체성원들을 폭력으로 짓누르면서 《싸드》발사대 4기와 관련장비들의 추가배치를 끝끝내 강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로 하여 경상북도 성주지지에는 침략적인 《싸드》포대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의 배치가 모두 완료되게 되였다.

이것은 《싸드》배치를 전결히 반대해온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국도로 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위험천만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가 전조선을 병탄하며 나아가서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에 따른것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보수정권시기 미국의 핵전쟁괴물인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역적패당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70년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싸드》를 덕에 걸고 군사적으로 영구히 틀고앉을 구실을 얻게 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엄중한 인명 및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불쓰게 된것은 물론 임의의 시각에 참혹한 핵재앙을 당할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였다.

만약 현 남조선당국이 저들이 믿질 외워대는것처럼 《진정한 초불민심의 대변자》라면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대로 박근혜패당이 저지른 범죄적인 《싸드》배치결정을 전면백지화하고 이미 끌어들인 《싸드》를 남조선에서 당장 철거시키는 결단부터 내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싸드》의 긴급전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느니, 《림시배치》라느니 뭐니 하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면서 한사코 《싸드》발사대 추가배치를 강행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국무총리》라는자는 괴뢰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이라는데서 입만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싸드》를 항구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망언까지 찌리낌없이 내뱉아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로써 《주민들의 동의없는 싸드배치강행은 없다.》던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초불민심을 완전히 배신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박근혜역도가 결정한 《싸드》배치를 천당국이 완성됐다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문재인정부를 대이상 〈초불정권〉으로 부를수 없다.》, 《문재인은 미국을 섬기는 트럼프의 삽살개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싸드》발사대추가배치로 하여 남조선은 북침전쟁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핵전초기지, 핵전쟁화약고로 더욱 철저히 전락됨으로써 주변대국들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가련한 새우신세로, 유사시 선제타격 및 보복타격의 제1과녁으로 되였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력사에 오명을 남길 치욕스러운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는 괴뢰당국은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아 마땅하며 주변국들로부터 그 어떤 가혹한 정치외교적, 경제군사적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내외여론의 강력한 단죄규탄을 받고 막다른 궁지에 몰린 괴뢰당국이 지금 《북핵, 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싸드》의 추가배치를 합리화하고있지만 그러한 궤변으로 자기들의 매국배족적죄악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해줄 귀중한 민족의 보검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남조선땅을 핵불바다에 잠글 침략자의 《싸드》는 보배덩이처럼 그러안은 망동이 그 얼마나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배족적범죄인가에 대해 머지않아 뼈저린 후회속에 재단게 될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에 굴종하여 재앙거리를 끌어들인 역적무리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하고 핵전쟁우환단지들을 한시바삐 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9월 14일
평 양

전쟁도발에 환장한자들의 무분별한 망동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광기적인 군사적도발소동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로 치닫고있다.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자 남조선괴뢰들은 극단적인 폭언들을 마구 내뱉으며 미제침략군과 함께 각종 북침불장난소동을 련일 벌려놓고있다.

얼마전 괴뢰군부깡패들이 미국과의 그 무슨 《강력한 군사적대응》에 대해 떠벌이며 우리의 혁시설들을 노린 폭군과 풍군의 미싸일합동타격훈련과 해군의 함포실탄사격훈련을 벌려놓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미국상전들에게 핵전략자산들의 항시적인 남조선전개를 극구 애걸하는 한편 미핵항공모함을 우리와 가까운곳에 배비할 기도를 드러내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는것이다.

지금 내외전문가들은 극한점에 이른 조선반도의 정세를 폭발시키는데는 성냥한가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있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기운이 떠도는 조선반도에서는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이나 군사적충돌도 삽시간에 전면전쟁의 불길로 타번질수 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구실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책동으로서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불은 불로 다스려야 한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은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소동을 강력한 물리적힘, 무자비한 불세례로 단호히 제압, 분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소동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터뜨리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저들이 벌려놓고있는 군사적도발소동을 그 무슨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한 《방어》적인것으로 정당화해나서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미국과 괴뢰들은 지금껏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그 목적이 우리의 제도를 힘으로 전복하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8월에 감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서도 그 무슨 《참수작전》이니, 《특수작전》이니 하면서 연습이 《작전계획 5015》에 따른 《대북선제공격》훈련이라는것을 로골적으로 시사하였다. 미국이 괌도로부터 핵전략폭격기전대들을 남조선지역상공에 계속 투입하면서 핵폭격연습에 광분하는것도 우리에게 불의적인 핵타격을 가하기 위한 모험적기도의 발로이다.

특히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에 질겁한 미국과 괴뢰들은 핵선제타격에 기대를 걸면서 그것으로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꾀하고있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북침전쟁연습들의 초점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종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기습정밀타격에 집중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군사적수단을 통한 해법》을 부르짖으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저들의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입대에 줄줄이 들이밀고있는것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삼다가 불의에 핵전쟁을 도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전쟁불사》니, 《예방전쟁》이니 하는따위의 폭언으로 우리를 위협해보려면 저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그 무슨 《대북선제타격》과 《전멸》을 부르짖으며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 미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배치를 정례화할 공공연한 음모를 벌려놓았다.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흉악한 기도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반공화국제재압박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단말마적인 발악으로서 북침전쟁도발이라는 마지막도박에 나서고있다는것이 명백하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 인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원쑤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심히 위협하면서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무모하게 날뛰는것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정의의 핵보검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시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틀어내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게 자중자숙하는것만이 구차한 목숨이나마 연명해갈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데 대해 알아들으리만큼 말해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은 호전적인 폭언들을 랑랑 웨치면서 군사적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북침핵선제타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흉악한 기도가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 지금 우리가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것은 응당한 권리이다.

우리는 이미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쳐물리치며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강국의 필승불패성과 불가항력적인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그보다 앞서서는 적들의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은 중대한 의미와 무게가 실린 우리의 경고에 도전해나서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할 백두산혁명강군의 의지와 공격력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우리의 주체식열핵무기들은 미국과 괴뢰군부불한당들의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는 정의의 무쇠주먹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달려드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철퇴를 피할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와 괴뢰군부깡패들의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며 계속 무모하고 잔망스럽게 놀아댄다면 우리는 단호한 징벌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있는 초강력열핵무기들은 결코 진렬품이 아니다.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타격이 시작되는 그 순간 침략자들의 본거지, 도발의 아성들은 완전초토화되고 영구불모지로 화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면하려거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미군을 내쫓고 조국의 자주통일 이룩하자

남조선시민사회단체들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2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70여년간 민간인학살과 경제적수탈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언급하고 그래서 미국과 한하늘아래서 절대로 살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강행한 《싸드》배비를 두고 집권자가 그 무슨 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뭐니 하고있지만 실은 미국의 강박에 굴복한 행위임을 누구나 잘 알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화만을 가져오게 될 《싸드》와 미군을 내쫓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세상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미군이 일제패망이후 남조선에 기여들어 일제시기의 폭압통치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남조선을 전쟁위험과 독재, 불의가 가득한 사회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하였다.

미군이 장점 70여년간 군사적건장과 반인륜적인 생화학무기실험실설치 등으로 남조선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회견문은 비난하였다.

회견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책동, 력위협으로 인한 전쟁위기와 분렬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청산해야 하는 악폐중의 악폐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회견문은 모두가 힘을 합쳐 조선반도전쟁위기의 주범, 분렬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미군은 싸드를 가지고 이땅을 떠나라.》, 《정화협정 체결하라.》,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등의 구호들을 연방 웨치였다.

광주대학살만행의 주범을 처벌할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당추진위원회가 8일 서울에 있는 전두환역도의 집앞에서 역도의 재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전두환역도가 《회상록》이라는데서 광주봉기당시 감행한 대학살만행의 책임을 전면부정하였다고 까밝히고 역도를 당장 구속수사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광주대학살만행의 주범인 역도가 전직《대통령》의 대우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해마다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학살자, 살인마를 경호해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지금이라도 당장 역도를 재구속할뿐아니라 대학살에 가담한 자들도 모두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는 전두환이 제가 저지른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실시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렸다고 규탄하였다.

진실과 력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전두환을 처벌하고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싸드》철거를 요구하는 대중적투쟁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일 남조선당국은 수많은 과쑈경찰들을 내몰아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끝끝내 《싸드》발사대추가배치를 강행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 《싸드》배치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로써 남조선집권세력은 《싸드》배치문제를 재검토하겠다던 선거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초불민심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미국상전의 요구라면 그 어떤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싸드》배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남조선당국의 과쑈적폭거는 각계층 인민들의 참을수 없는 울분을 폭발시키고있다.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를 강행한 당국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면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싸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싸드》배치가 강행된 지난 7일 성주군의 한 마을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대미굴종행위와 반인민적인 폭거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당국이 《절차적, 민주적정당성》을 갖추겠다는 거짓말로 민중을 속이려들다가 끝내는 배반하였다고 단죄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에서 당국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현 집권자가 《싸드》배치의 강행으로 박근혜와 다름없이 적폐를 쌓고있다고 하면서 그가 《정권》을 쥐도록 투표하여준 자기들의 손이 부끄럽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도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탄압한 당국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체성원들은 《미국놈들 물러가라.》, 《폭력〈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항의시위를 벌리였다.

《싸드》배치를 규탄하는 인민들의 항의투쟁은 대전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국민주권실천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72년이 되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리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드》배치에 항거해나선 주민들과 할머니들까지 짓밟은 과쑈광들의 만행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만가지 악의 근원이고 전쟁의 씨앗인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은 《싸드》를 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날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집회를 열었다.

집회참가자들은 후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아무 쓸모도 없는 《싸드》를 끌어들인 당국의 친미굴종행위와 긴장격화를 부추기며 무기장사로 제 리속을 채우려는 미국의 흉악한 속심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미국은 〈싸드〉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미군은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날로 높아가는 항의의 목소리에 겁을 먹은 남조선당국이 《불가피한 선택》이니 뭐니 하는 말장난질로 분노한 민심을 녹잦혀보려 하고있지만 인민들은 그에 속아넘어가지 않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싸드》를 철거시키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결의를 표명하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싸드》를 끌어들인 남조선당국은 그 용납 못할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리 홍 철

비참한 종말은 식민지하수인의 숙명

심복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한 애비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채 청와대안방을 타고앉아 갖은 못된짓을 다하던 박근혜역도가 지금 재판정에 개처럼 끌려다니며 선고의 날을 기다리고있다.

온갖 사기협잡과 권모술수로 권력을 강탈한 후 온 남녘땅을 자유의 무덤, 인권의 무덤, 희망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역도가 그 만고죄악의 대가를 가장 처절하게 치르고있다.

박근혜의 가련한 처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는 역적배들이 파멸당하는것은 필연이라는 력사의 교훈과 함께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라 할지라도 일단 용도폐기되면 벌레처럼 짓밟아버리는 미국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매국을 일삼는자들은 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는것은 물론 상전으로부터도 처참하게 버림을 받게 된다.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운명도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남조선전역에서 힘차게 전개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항쟁을 지켜보며 이미 정치적운명이 끝장난 박근혜를 살릴 방도가 없으며 설사 역도를 살려놓았댔자 미국의 리익에 도움이 될것은 코풀만큼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얼기 쉬운 녹거리창녀는 버리기도 쉬운 법이라고 박근혜같은 패물은 제때에 버려야 상책이라는것이 미국의 속구구였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더러운 명줄을 조금이나마 유지해보려고 온갖 재앙의 화근인 《싸드》배치요구도 서슴없이 받아들이며 애타게 발버둥질하였지만 배정스러운 상전은 그 어떤 구원의 동아줄도 던져주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박근혜의 퇴진을 늦추어서 얻을것은 없다.》, 《지체없이 다음기 〈대통령〉을 뽑는것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산송장이 된 박근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괴뢰역도의 망신거리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저들이 만드는 《인권보고서》에 그대로 박아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초 미국무성은 《2016 인권보고서》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내막을 까밝히면서 그것을 남조선의 험악한 인권실태와 결부하여 취급하였다.

미국이 저들이 피고들던 식민지주구인 박근혜역도의 부정부패범죄를 《인권보고서》에 써첫이 올려놓은것은 온갖 추악한 행실을 일삼은것으로 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악귀로 만사람의 저주와 비난을 받고있는 년의 죄악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기본은 주구에 대한 폐기처분을 제때에 내려야 저들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 정국혼란이 심화되는것을 막을수 있다고 타산한것과 관련된다.

사대와 굴종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던 천하미치광이, 외세에 붙어서만 생존할수 있는 더러운 기생충인 박근혜역도는 그처럼 온몸을 바치며 섬겨온 미국상전으로부터 찌끈한 오물취급을 당하며 사정없이 내동댕이쳐졌다. 바로 이것이 식민지주구의 가련한 말로이다.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닌 종속관계, 상전과 주구의 관계라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다.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대통령》을 메고붙이는것이 미국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남조선의 력대 괴뢰대통령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상전에게 코를 꿰여 끌려다닌 꼭두각시들이였다.

미국은 남조선의 주구들이 아무리 《대통령》감투를 쓰고있어도 마구 하대하는가 하면 지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는 리용가치가 없게 되였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괴뢰통치배들이 미국을 하내비처럼 여기면서 역겨운 아첨을 하지만 미국은 그들을 한갖 식민지머슴군으로밖에 치부하지 않으며 거치장스러울 때에는 사정없이 갈아치운다.

언제인가 미국무성의 한 전직관리는 자기의 도서에서 미국은 괴뢰집권자들이 쓸모가 없을 때에는 제때에 제거하며 필요한 경우 숨통을 끊어버린다, 두번다시 말 못하게 공동묘지에 매장해주는것까지 《직정》해준다고 썼다.

버린 밥으로 잉어를 낚는다고 미국은 필요없게 된 주구들을 제물로 바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정부》기운을 녹잦히고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획책하였다.

4.19인민봉기로 남조선에서 식민지지배체제가 밑뿌리채 뒤흔들리자 미국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늙다리 리승만을 군용기에 실어 하와이에 팽개쳤다.

미국은 류혈적인 쿠데타로 청와대에 들어앉힌 《유신》독재자가 걷잡을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을 때에도 18년간이나 씨먹던 주구를 서슴없이 제거하였다. 군부깡패들인 전두환, 로태우역도와 《문민》의 탈을 썼던 김영삼역도도 망아간의 나귀처럼 실컷 씨먹고는 차버렸다.

미국에 있어서 괴뢰대통령들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고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기 위한 한갖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 저들에게 아부굴종하며 고분고분하는 괴뢰대통령이라고 해도 쓸모없으면 지체없이 배척하는것이다.

이런 심보사나운 상전을 《구원자》로 믿고 아양을 떨며 이것저것 다 섬겨바치고도 종당에는 비참한 파멸의 신세를 면치 못한 가련한 주구가 바로 박근혜역도이다.

박근혜가 탄핵되기 바쁘게 역도를 외면해버린 미국의 처사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상전의 발바닥까지 핥아주어도 나중에는 버림받은 개취급을 당할수밖에 없으며 종당에는 비극적운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것이 식민지하수인들의 신세이다.

현 남조선당국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가 되였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을 등지고 미국에 명줄을 걸었다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말로를 똑바로 보고 굴욕적인 대미추종정책을 버려야 한다는것이 남녘민심의 준엄한 경고이다.

허 영 민

그 어떤 압박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주체조선이 또다시 세계를 놀래우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우리의 눈부신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날뛰는 적대세력들의 그처럼 악랄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체로 개발한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고 그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종합적국력과 잠재력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게 되였으며 아시아와 세계정화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지위는 더는 되돌릴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경이적인 이 사실앞에서 온 세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떨고있다. 적대세력들속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여 날강도적인 대조선《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내고 무슨 큰일이나 친것처럼 우쭐렁거리지만 그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우리와의 대결전에서 미국은 대참패를 당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대사변을 안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을것이다. 우리에 대한 무지와 오판으로부터 출발하여 대조선정책을 작성하고 실현해보려고 무모하게 날뛰던것들이니 그럴수밖에 없다.

우리 국가의 련속적인 강타에 미국은 얼혼이 나갔다. 핵위협공갈로 우리를 눌러보려 하던것들이 이제는 무서운 악몽속에 빠져 전전긍긍하고있다. 온 미국땅이 말그대로 핵악몽에 시달리고있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불아온 트럼프패거리들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바빠난 미국의 트럼프패거리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민심을 달래보려고 미싸일요격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면 능히 막을수 있다고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는가 하면 대륙간탄도미싸일요격시험을 한다 어쩐다 하며 허세를 부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에 빠져 허덕거리는자들의 어리석은 객기에 불과하다.

얼마전 미국의 한 미싸일전문가는 미국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와의 회견에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리론적으로는 요격할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날아오는 미싸일을 맞히기 어렵다, 조선의 《화성-12》형과 같은 중장거리전략탄도미싸일도 정확히 어디로 떨어지겠는지 말해주기 전에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요격체계로 조선의 탄도미싸일을 요격하겠다고 하면 조선이 이것을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간주할것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결과만 초래한다, 조선의 탄도미싸일요격에 애를 쓰는것은 허무한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결코 무근거한 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으로 미국본토전역을 타격권안에 넣고있으며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불의적인 기습발사로 아메리카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놓을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으로서는 인정하기가 피롭겠지만 엄연한 사실앞에서야 어쩌는 수가 없지 않는가. 그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미국스스로가 이런 골카미를 뒤집어썼다.

우리가 그만큼 충고를 주고 경고도 하였지만 미국은 도무지 실현불가능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며 힘으로 실현하려고 미쳐날뛰였다. 그것이 미국을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빠뜨렸다.

아마 우리와의 대결에서 련속 패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심리는 복잡하겠지만 미국은 교훈을 찾고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하는 피로움에서 벗어나고 미국이라는 대국의 안전과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길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것뿐이다. 이것은 미국사회에서 고조되는 여론이며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전 미국방장관 페리는 《조선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조선의 붕괴를 예상하여 정책을 작성하여왔는데 실패로 판명되였다.》라고 말하였다.

미해군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그루빠 책임자, 미국 케이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장해제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였지만 조선은 당 제7차대회에서 핵보유국지위강화의지를 다시금 확언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그들이 시도한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은 상태이다, 조선반도에서 몸을 빼는것이 미국에 유익한 전략적선택이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존즈 홉킨스종합대학 미국-남조선연구소 상급연구원이며 조선문제전문가인 죠엘 위트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글에서 《군사적위협과 제단식으로 확대되는 제재가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가장 큰 실책으로 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중국이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심한 오산이다. 지금처럼 계속 행동하다가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될것이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렇다. 시간도 정의도 우리의 편에 있으며 대세의 흐름도 우리가 주도하고있다. 미국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확고하게 쥐여져있다.

미국의 집권자들에게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나라를 통채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않으려거든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대조선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이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나간다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대응조치는 더욱 강도높게 취해질것이다.

리 학 남

날로 로골화되는 해외침략책동

일본이 자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들에서 《PAC-3》요격미싸일전개훈련을 잇달아 감행하였다. 요꼬다미공군기지와 이와국니미군기지에서 훈련을 벌린데 이어 미사와미군기지에서도 같은 연습을 벌려놓았다. 《자위대》가 미군기지들에서 《PAC-3》요격미싸일전개훈련을 진행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간교한 일본은 그 명분으로 조선의 《미싸일위협》을 내세웠다.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파는 격이다.

일본《자위대》가 구비하고있는 《PAC-3》요격미싸일체계가 지역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 미싸일방위체계의 구성요소라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은 미국제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의 도입문제도 검정하였다. 주변대국들이 이에 몹시 신경을 쓰고있다.

일본은 요격미싸일전개훈련을 벌려놓은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남해분쟁수역에서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고있다. 일본은 영국까지 끌어들여 합동군사훈련을 벌린 공공이를 하였다고 한다.

최근 영국수상 메이가 일본을 행각하여 아베와 회담을 진행하였다. 론의된 내용의 요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사이의 협력에 영국이 합세하는것, 그로부터 중국남해분쟁수역에서 벌리는 미일합동군사훈련에 새로 건조된 항공모함을 위시로 한 영국군무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는것 등이다.

일본이 미군기지들에서 《PAC-3》요격미싸일전개훈련을 벌리고 영국의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중국남해분쟁수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고 떠하고있는것은 대륙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아시아 각국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극우익정객들이 야스꾸니진자에 꾸역꾸역 몰려다니는것도 그때문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정치군사적발판을 다져온 일본은 그 실천단계의 일환으로 중국남해분쟁수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적극화하고있다.

올해초부터 중국의 턱밑에서 미핵항공모함타격단과 《자위대》함선들사이의 공동훈련이 벌어나게, 보란듯이 벌어져 여론을 환기시켰다.

중국동해상공을 작전무대로 한 항공《자위대》와 미공군사이의 공동훈련도 날로 빈번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자위대》전투기들이 미핵전략폭격기 《B-1B》편대와 조어도주변상공에서 쌔짓이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일본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견제가 목적이라고 로골적으로 광고하였다.

최근 륙상《자위대》는 80대의 땅크 및 수륙량용장갑차, 지승기들이 투입된 가운데 중국남해분쟁을 가상하여 력대 최대규모의 실탄사격을 동반한 외딴섬탈환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일반사람들에게 공개하였다.

중국남해분쟁수역에서의 일본의 군사행동이 완전히 례사로운것으로 되어버렸다.

이제는 미국을 등에 업는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영국을 비롯한 유럽나라들까지 끌어들여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이미 영국과 일본은 《자위대》와 영국군사이에 탄약 등을 제공할수 있게 하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을 발효시킨 상태이다.

현실은 일본이 넘볼처럼 외워대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국주의광신자들의 해외침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관측자들은 앞으로 일본의 군사행동이 보다 위험한 양상을 띠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리 효 진

조선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담보하고있다

여러 나라 단체들과 인사 강조

우리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과 인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의 기간에 성명, 글을 발표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무력시위의 일환이며 107년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날에 일본에 안긴 강타였다.

이번 로케트발사훈련을 겪고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과 일본반동들의 히스테리적인 반공화국소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은 그 어떤 압력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을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 만세!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미제에게 추종하는 덩지큰 나라들은 수치를 느끼라!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는 신문 《아르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로케트들을 성과적으로 발사하고있다.

이에 대해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가 조선에 의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고 격찬하고있다.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조선의 군사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것은 또한 조선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도 된다.

미국은 조선의 힘앞에 아찔해졌을것이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로씨야 다게스딴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성명들에서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담력과 배짱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평화를 수호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성명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된다고 하면서 비렬한 압력과 위협에 떠여달리고있는 미국의 정책은 전쟁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 화성포들의 련이은 발사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련속 강타를 얻어맞은 미국이 조선반도정세가 악화되게 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조선의 《핵위협》에 대해 떠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느니, 조선의 미싸일이 일본과 미국본토를 향하여 발사되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너두리를 늘어놓았다.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추종세력들을 휘동하여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조작에 광분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국방력강화조치에 얼혼이 나가 그 누구의 《핵위협》설로 혹백을 뒤집어씌우려는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 나라만큼 미국의 핵위협을 오랜 기간 직접적으로 받아온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올해에만도 미국은 괌도와 본토에 공지를 돌고있는 《B-52H》, 《B-1B》, 《B-2A》를 비롯한 핵전략폭격기, 주일미군기지에 도사리고있는 스텔스전투기들인 《F-22A》, 《F-35B》, 미제침략군의 해외침략수단들인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칼빈손》호 등 용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전략자산과 침략무력을 총출동하여 남조선전역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17》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직전의 최악의 사태로 몰아갔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위협》으로 몰아붙이며 반인륜적인 제재소동에 떠여달리는것은 날강도적인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조선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새로운 폭탄들을 시험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것은 바로 미국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를 위협하는것은 전세계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라고 경고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꽁고통신사는 트럼프행정부가 선행한 미행정부들의 전략적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구태의연한 대조선정책을 고집하고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캄보자국가라지오방송은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단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과 신문 《워싱톤 포스트》,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신문 《가디언》, 프랑스의 AFP통신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들은 조선의 핵무력강화를 막을수 있는 방도는 없다, 조미사이의 대결구도는 달라졌다, 트럼프가 취할수 있는 선택안은 조선의 핵능력을 인정하는것뿐이다고 보도하였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체조선의 핵무력강화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온데 대응한 자위적선택이며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로 하여 세계의 군사력학적구도가 완전히 달라진데 맞게 대조선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할것이다.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이제리아단체들 련합성명 발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가 3일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친필명령에 따라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체적핵강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조선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였을뿐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다.

유엔총회 제72차회의 개막

유엔총회 제72차회의가 12일 유엔본부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90여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엔개혁, 군축, 인권, 지속개발 등과 관련한 170여개의 안건들을 토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11일 유엔총회 제71차회의가 폐막되였다.

미국의 제재책동을 비난

파키스탄수상 샤히드 하깐 아바씨가 최근 자기 나라 정부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슬람교무장세력인 《하카니망》이 파키스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고 걸고들면서 제재를 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로 자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수리아정부군 반테로전과 확대

수리아정부군이 최근 테로와의 싸움에서 련일 전과를 올리고있다.

이 나라의 사나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수리아군은 9일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에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데이르 알 주르도에 있는 주요유전과 군용비행장을 탈환하였다.

10일에는 수도 다마스끄와 데이르 알 주르시를 련결하는 주요도로와 그 주변지역들, 테로분자들의 요충지의 하나인 알 타르다산을 장악하였다.

파키스탄과 에짚트에서 테로소탕작전

파키스탄의 카라치시에서 10일 테로소탕작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무장악당 1명이 체단되고 50여명이 체포되였다.

같은 날 에짚트경찰은 기자도에서 10명의 테로분자들을 소멸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3월부터 9월 10일까지 약 50명의 테로분자가 체단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처지개선노력

케냐아정부가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며 그들의 사회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7일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경제분야에 필요한 기능공들로 자라나게 된다.

계획실현을 위해 전국에 있는 직업기술교육시설들에 대한 개건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소아마비예방접종사업

우간다에서 최근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진행되였다.

9일부터 3일동안 진행된 깜빠니야기간 전국적으로 약 740만명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왁찐을 접종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경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고 밝혔다.

아자기름증산노력

잠비아에서 더 많은 아자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에 아자나무재배면적을 현재의 2 911㏊로부터 2만㏊로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아자기름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되게 된다고 한다.

웰남에서 락화생수확

어길수 없는 승리와 패배의 두 전통(4)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빚어낸 응당한 귀결

미국의 반공화국핵위협공갈책동은 참으로 뿌리깊은것이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1950년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되였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8월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사용하려 하였으며 그해말에는 조중국경지역에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는 《구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폭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그때 인천앞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항공모함에는 핵탄을 탑재한 함재기들이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다음해에는 조선에서 《원자탄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하여야 할것이다.》라는 폭언도 늘어놓았다. 미제의 원자탄위협공갈은 수많은 가족들이 북과 남에서 갈라져살게 하는 가슴아픈 비극을 낳았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후 미국은 로골적으로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공화국에 위협을 가하여왔다.

1990년대 조미핵대결전에서 패한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 대한 핵위협공갈책동을 극도로 강화하였다.

2002년 1월 30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년두교서》라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모독중상하고 무력침공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미국대통령이 정책연설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 이처럼 로골적인 폭언을 늘어놓은적은 없었다. 부쉬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이 쓴맛을 본 《조선붕괴론》을 또다시 들고나오며 《붕괴》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힘을 비롯한 온갖 수단을 행사하여서라도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조선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며 어기에 쓸 지하시설파괴용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과 이를 위하여 핵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것 등을 또아박았다.

미국은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특정적인 담보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이 그와는 완전히 배치되게 우리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한것은 실제상 조미기본합의문의 폐기를 의미하며 기어이 우리를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는 흉심을 드러내보인것이나 같았다. 그 진실어부는 당시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어느 한 외신과의 회견에서 부쉬행정부의 최종적인 대조선정책목표는 《제재붕괴》라고 폭언한데서 더욱 뚜렷이 확인되였다.

또한 미국은 1990년대초에 날조해 씌먹은 황당무계한 《플루토니움핵계획》설의 복사판인 《농축우라니움핵계획》설을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농축우라니움핵개발을 인정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도 대조선핵선제공격과 강권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불가침조약제의도 미국은 《선핵포기, 후대화》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완전히 묵살해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미대화의 길을 차단시켰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2003년 1월 10일 우리 공화국정부는 10년간 림시정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조약에 따라 3개월이 지나면 탈퇴효력이 발생하게 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이 1993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언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03년에 와서야 조약탈퇴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킨것은 핵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과 심중성의 표시였다.

조약에서 탈퇴한 후에도 미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날로 더 한층 강화되였다.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었다.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길만이 남아있었다.

우리 국가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을 보유하는 길로 나아갔다. 결국 미국이 우리를 핵보유의 길로 떠민셈이다.

우리 공화국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맞설수 있는 정의의 힘을 틀어쥐였다. 이것은 조미대결전에서 주체조선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였고 미국이 당한 쓰디쓴 참패였다.

본사기자 김 승 걸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학비 인상

카나다에서 대학생들이 계속되는 학비인상으로 무거운 부담에 시달리고있다. 6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2017학년도에 전국의 대학들에서 학비가 그 전학년도에 비해 평균 3.1% 올라갔다고 한다.

범죄행위

프랑스의 와즈현에 있는 철도역에서 10일 정체불명의 무장악당들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한 녀성과 2명의 어린이를 살해하였다. 이에 앞서 7일 일본 센다이시에서는 한 남성이 10명의 6살미만 소녀들에게 성희롱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프랑스 빠리의 남무교외에서 6일 2명의 범죄자가 비법적으로 폭발물을 자체로 제조해온 죄행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마약 및 알콜람용 성행

미국에서 마약 및 알콜람용행위가 성행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마리후아나를 사용하는 성인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3% 증가하였다.

지난해에 6만 4 000명이 마약람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전국적인 알콜람용자수는 1 500만명에 달하고있다.

교통사고

에스빠냐의 북부지역에서 5일 승용차와 자동차가 충돌하여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나라에서는 7월과 8월에만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224명에 달하였다.

같은 날 뛰르끼예내무성이 밝힌데 의하면 최근 10일동안에 이 나라에서 교통사고로 122명이 죽고 450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자살 성행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7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약 6 600명이 자살하였다. 특히 잉글랜드의 서남부지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미국과 까리브해연안 나라들에서 태풍피해

미국과 까리브해연안 나라들에서 최근 태풍이 들이닥쳐 혹심한 피해를 입고있다. 태풍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40명이 부상당하고 12만 5 000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으며 260억US$어치의 손실이 났다.

또한 200만명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마이아미시의 대부분지역이 물에 잠겼다. 앞으로 태풍은 죠지아주, 알라바마주, 미씨시피주, 테네시주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초래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이번 태풍으로 안티구아 바부다와 뿌에르또리꼬, 도미니까의 북부해안 등에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뿌에르또 리꼬에서는 주민인구의 70%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안티구아 바부다의 바부다섬에서는 건물의 90%가 파괴되였다.

꾸바의 동북부해안지역에서 약 70만명이 소개되였으며 아바나시에서는 수많은 나무들과 전주대가 넘어지고 건물지붕이 벗겨졌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산불

에스빠냐의 우엘바주에서 8일 산불이 발생하였다. 산불로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약 500명이 긴급대피하였다.

센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여 진화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있다 한다.

지진피해 확대

메히꼬의 서남부지역 앞바다에서 7일에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사망자수가 90명으로 늘어나고 324개의 학교건물이 파손되였으며 8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피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146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